

정해정 <민농가>의 배경과 성격

김신중**

<차 례>

1. 머리말
2. <민농가>의 창작 배경
3. <민농가>의 작품 성격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884년에 정해정이 지은 가사 <민농가>에 대한 연구이다. <민농가>는 1980년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민농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그 창작 배경과 문학적 성격을 해명한 것이 이 글이다. 제1장에서 이런 연구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제2장에서 <민농가>의 창작 배경을 탐색하였다. 작자 정해정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및 작품의 창작 동기가 그것이다. 정해정은 조선 말 호남의 무등산 자락에 살았던 인물로, 개항과 개화로 대변되는 19세기 후반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당시의 특수한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이 작품을 지었다.

이어 제3장에서 <민농가>의 세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의식과 문학적 성격을 해명하였다. 내용 분석은 작품 전체를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민농가>에 두 개의 주제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 <민농가>가 단순한 권농가사가 아니라, 당시의 부당한 세정과 어려운 민생에

* 전남대학교

반발한 현실비판가사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농부가류 가사로서, <민농가>의 특성과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아울러 <민농가>에 그 단초가 보이는 조선 후기 농부가류 가사의 변모상 탐색을 남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 정해정, <민농가>, 농부가류 가사, 권농가사, 현실비판가사

1. 머리말

<민농가(閔農歌)>는 농사를 걱정하며, 전가의 농사일에 빗대 나랏일을 비판한 가사 작품이다. 조선 말 호남의 무등산 자락에 살았던 인물 석촌(石村) 정해정(鄭海鼎)이 1884년(고종21)에 지었다. 정해정은 또 <민농가>와 함께 다른 가사 작품 <석촌별곡(石村別曲)>을 지었다. 그래서 <민농가>와 <석촌별곡>을 아울러 보통 ‘석촌가사’라 부른다.

석촌가사가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의 일이었다. 이상보가 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를 통해서였다.¹⁾ 이후 석촌가사는 호남의 지역문학을 다룬 논저들은 물론이고,²⁾ 한국의 가사문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자료집이나 주해서에 이르기까지 두루 수록되어,³⁾ 그 존재가 그런대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논의가 개괄적인 언급이

1) 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명지대학교 논문집』 제12집, 1980.(1993년 이회문화사에서 나온 같은 필자의 저서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에 재수록됨)

2)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김신중·박영주 외,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2009.

3)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8·40권, 아세아문화사, 1998.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제7·10권, 아세아문화사, 2005.

나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정해정과 석촌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석촌별곡>에 대한 연구 논문을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다.⁴⁾ 그리고 <민농가>에 대한 이 글을 그 후속 작업으로 마련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민농가>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배경 사실을 살피고, 작품의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 의식과 함께 농부가류 가사로서 갖는 문학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있다.

현재 <민농가>에 대한 학계의 인식은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한 이상보의 견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憫農歌>는 耘圃 丁學游의 <農家月令歌>나 巷間의 <農夫歌>와도 같이 勸農歌辭인 점에서 그 特徵을 찾을 수 있다”⁵⁾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민농가>는 조선 후기의 농부가류에서 흔히 보이는 단순한 권농가사가 아니라, 이에 더하여 정해정이 살았던 근대 격변기의 어려웠던 사회상을 적극 반영한 현실비판가사로도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민농가>의 창작 배경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민농가>와 관련된 정해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및 작품의 직접적인 창작 동기이다. 그런데 필자는 앞선 <석촌별곡>에 대한 논문에서 정해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왕에 진행한 논의의 <민농가> 관련 내용⁶⁾을 다시 요약 검토하며 그 창작 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민농가> 이해를 위한 정해정의 생애이다. 정해정은 1850년(철종 1)에 태어나 1923년에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자는 장일(章一)이고, 석촌

4)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론총』 제12집, 태민국학연구원, 2013.

5) 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531면.

6)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제2장과 제3장.

외에도 석당(石堂)·방촌(放村)·방실(放室)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가 살았던 향리가 어디였는지는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필자가 지난 논의에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만월리 상촌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상촌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깊은 산골마을로 6·25를 겪으며 폐동되었으며, 정해정이 살았던 삶의 흔적은 현재 그 인근에 남아있지 않다.

정해정의 본관은 영일이고, 그는 영일정씨 운봉공파에 속한다. 그런데 운봉공파의 시조인 운봉공은 바로 정철의 3남 정진명(鄭振溟)이고, 정해정은 정진명의 10세손이다. 여기서 정해정이 곧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송강 정철의 후예임을 알 수 있다. 또 정해정의 석촌가사가 바로 송강가사의 가맥을 이었다는 사실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정해정은 평생 자신의 향촌을 지키며 살았던 평범한 시골 선비였다. 그의 생애에서 향촌을 떠난 출사 이력이나 특별한 활동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종 향리에서 시문을 벗 삼아 산수 간을 오가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담양과 화순과 광주에 걸친 서석산, 즉 무등산 자락 일대가 그가 주로 노닐 곳이었다. 그의 학문과 사승에 대해서도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다.

정해정은 그의 나이 35세이던 1884년에 <민농가>와 <석촌별곡>을 지었다. 이때가 그의 인생 중반의 가장 활기찬 시기였다. 반면에 이 시기는 또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탈로 인해 많은 수난과 변화를 겪던 때이기도 하였다.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에 이어, 1876년에는 일본 침략의 발판이 된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또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둔하며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농가>를 지은 1884년 10월에는 우리 근대사의 큰 사건으로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당에 의한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복제개혁이 반포되었다. 복제개혁의 요지는 기존 복식을 간소화하여 소매가 넓은 광수의(廣袖衣) 대신 소매가 좁은 착수의(窄袖衣)를 입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 정책은 당시 조야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일어난 것이 정학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과 이단을 물리치자는 위정척사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860년대부터 외세와의 통상 수교 및 개항을 반대하고, 정부의 개화정책을 비판하며 진행되었다. 이항로·기정진·최익현 등 보수적인 유학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정해정 역시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복제개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민농가>는 바로 이런 개항과 개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창작되었다.

정해정은 그때 <석촌별곡>과 <민농가>를 짓고, 작품의 창작 동기를 자신이 직접 쓴 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다.

<석촌별곡>은 불우함에서 나왔으며, 또한 나의 뜻을 의탁한 것이다. 가사의 뜻은 지극히 간절하나 조법이 고르지 않아, 필시 고명한 사람의 웃음거리가 됨이 있다. 하지만 어찌 마음을 달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무릇 노래라는 것은 본디 불평에서 말미암으니, 이런 끝이 곧 지금 나의 <석촌별곡>이다. 이것을 어찌 우연히 지었겠는가? 결계를 돌아보면, 곧 혜탄의 무리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감개를 금치 못하는 자가 유독 나뿐이 아닐 따름이라!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훌륭한 옛 제도로 다만 의정이 있는데, 이 갑신년을 다시 당하여 일체를 변혁시키니 이것이 통곡처요, 연재가 이른바 ‘산에 들고 바다를 건너도 어디에 몸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이 어찌 통읍처가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이후로 문을 닫아 자취를 숨기고, 운림에 숨어 인사를 폐하고, 실낱같은 목숨을 스스로 보전할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나치게 상했다고 이르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를 버렸다고 비웃을 것이니, 더욱 이것이 걱정이다.

이즈음 간신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소인을 올리고 군자를 물리치며, 하늘의 해를 어둡게 가리고 성스러운 조정을 어지럽히니, 심간이 찢어지려 하고 눈물 콧물이 턱으로 흘러내려, 슬픈 마음이 몹시 심하였다. 지금 세정이 날로 사치함을 일삼고, 재물을 써서 탕진하고, 도적이 더욱 성행하고, 곳집은 비고, 세금에다 세금을 더하여, 생사람의 도탄일 따름이다. 하물며 또한 왜구와 청병이 해마다 늘어나 서울에 두루 머물고, 금년에 이르러서는 곧 지방에도 횡행하니, 이천의 탄식이 이미 목전에 닥쳤다.

<민농사>⁷⁾를 지음에 이르러서도, 역시 시사를 끌어들이 우매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비록 참망한 죄가 혹 있을지라도, 또한 미처 펴지 못한 뜻을 다했으니, 사사로운 것이 어찌 망령되지 않겠는가! 마음속이 끓어올라 도리를 알지 못하겠도다!

갑신년 칠월 이십구일 석촌이 취하여 쓴다.⁸⁾

이 발문의 전반부는 <석촌별곡>에 대한 언급이고, 후반부는 <민농가>에 대한 언급이다. 다소 길지만 <석촌별곡> 역시 <민농가>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기술 순서에 따라 <석촌별곡>에 대한 언급부터 차례로 보기로 하자.

먼저 <석촌별곡>을 작자 자신의 불우함과 현실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어 탄식한 노래라고 하였다. 또 이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으니, <석촌별곡>을 결코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작자를 이처럼 탄식케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갑신년(1884) 6월에 반포된 복제개혁에 있었다. 정해정은 당시의 여느 선비들처럼 전통 복제를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복제개혁 조치에 크게 상심하였다. 때문에 복제개혁에 반대하여 상소하였던 송병선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도 이제는 세상을 피해 산수 간에 숨어 지내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석촌별곡>의 제작 동기가 현실에 대한 불평, 특히 복제개혁에 대한

7) <민농사>가 곧 <민농가>이다.

8) 右石村別曲 出於不遇 而亦寓己意 詞旨至切 調法不均 必有高明之貽哂 然豈不爲遣懷之姿耶 夫歌也者 素由於不平 這端則今余此曲 是豈偶爾而作歟 回視缺界 則蕙嘆之徒 不可觀縷說去矣 不禁感慨者 非獨余而已哉 惟我東壤 皇明古制 只有衣政 而值此涸灘重回之歲 一切變革 寔是痛哭處也 淵齋所謂 入山渡海 不知置身於何地 豈不痛泣處哉 自今伊後 杜門裏蹤 蟄於雲林 以廢人事 自保縲命 知我者 謂我過傷 不知我者 哂我自棄 尤是忡悵也 際此 奸臣擅權 陟小人 黜君子 昏蔽天日 亂濁聖朝 心肝欲裂 涕泗交頤 哀愴之心 不無切至矣 目今世情 日事奢靡 財用蕩析 盜賊滋熾 倉廩乏空 稅外加稅 生民之塗炭已矣 況又倭寇與清兵 年年增益 彌留長安 至於今年則 橫行郡國 伊川之嘆 已迫目前矣 暨作憫農詞 亦控時事 以露愚昧之情 雖或有譖妄之罪 亦盡未伸之情 私者何不狂妄也哉 衷赤沸熱 不知所哉 甲申七月二十九日 石村醉毫 (정해정, <跋文>. 원문은 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530~531면에서 재인용.)

반발과 상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곧 작자를 산수 간에 침잠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남은 것이 <석촌별곡>이었다.

작자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와 민생, 그리고 외세의 침탈을 비판하며 개탄하였다. 그것을 적시하면, 조정에서는 간신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소인이 득세하고 군자가 배척되었다. 지배층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국고를 탕진하였고, 세정이 어지러워 세금에 세금을 더하였다. 그래서 민간에는 도적이 성행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게다가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활개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어두운 시사를 끌어들이어서, <석촌별곡>에다 미처 다 펴지 못한 뜻을 나타내 지은 것이 바로 <민농가>였다. 따라서 <민농가>가 겉으로 비록 농부가류의 노래 양식을 표방하였지만, 안으로는 당시의 복잡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였으리라는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렇듯 <민농가>는 조선 말의 복제개혁과 외세의 각축 및 작자의 눈에 비친 어지러운 사회와 어려운 민생에 대한 반발로 창작되었다. 창작 시기는 당연히 1884년(갑신년) 6월에 있었던 복제개혁 이후이다. 그리고 작자가 창작을 마치고 발문을 쓴 같은 해 7월 29일 이전이다. 즉 <민농가>의 창작은 1884년 6월에서 7월 29일 사이에 <석촌별곡>과 함께 이루어졌다.⁹⁾ 계절상으로는 갑신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이다.

9) 그런데 석촌가사가 학계에 소개되며 <석촌별곡>만 1884년 7월 29일에 창작되고, <민농가>는 같은 해 동짓달에 지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528·530면 참고). 이는 <민농가>의 필사본 제목 아래에 적힌 ‘甲申至月日’이라는 기록에서 비롯된 착오로 보이는데, 이 기록은 <민농가>의 창작이 아니라 필사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민농가>의 작품 성격

‘민농(閔農)’이란 말 그대로 농사를 걱정한다는 뜻이니, <민농가>는 농사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살피는 노래이다. 외형상으로 4음보 1행의 율격이 매우 정연하며, 전체의 길이는 모두 55행이다. 어구에는 한문투가 많이 구사되어 있는데, 특히 『시경』의 어구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민농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천착해 보기로 한다.

<민농가>의 내용은 화자인 작자가 지나가는 ‘노농(老農)’ 또는 ‘농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는 청유형의 독백조로 시종 기술된다. 전체의 내용은 네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그 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01행~04행) : 천하의 대본으로서 농무의 중요성 강조
- 제2단(05행~25행) : 전가에서 춘하의 적시에 행할 농사일의 권장
- 제3단(26행~50행) : 나라의 문란한 세정과 소인의 발호 비판
- 제4단(51행~55행) : 권농의 환기와 왕가의 소인 척결 주장

이 네 단락 중 제1단이 서사라면, 제2단과 제3단이 본사이고, 제4단이 결사이다. 서사인 제1단부터 먼저 작품의 원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인용문으로 제시한 원문 원편의 숫자는 필자가 붙인 작품의 행 번호이다.

- 01 더기가난 더老農아 이너農謳 슬퍼듯쇼
- 02 國家의 밋난근본 우리黎民 괴아니며
- 03 우리黎民 밋난근본 이너農務 아릴손야
- 04 크거나 더큰事業 天下大本 이뿐이라¹⁰⁾

10) 이하 <민농가>의 작품 인용은 임기중이 편한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8권(422~424면)에 영인된 필사본에 의한다.

<민농가>의 서두는 지나가는 ‘노농’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의 근본은 농무이니, 그것이 곧 유일한 천하의 대본이라고 하였다. 작품을 시작하며 의례적으로 농무의 중요성과 중농사상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민농가>가 보통 농부를 청자로 삼아 농사일을 말하며 권농하는 기존의 농부가 양식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제2단이다.

05	稷降播谷	도흰저씨	徂隰徂畛	地理슬퍼
06	破塊燒菑	이暮春의	不違其歲	先務로다
07	粒我烝民	우리聖主	南郊의	親耕홀제
08	六曹役官	農夫도여	載芟載柞	흐올저기
09	井田法	고쳐두고	豳風詩	외오난다
10	六府三事	允治하니	萬世永賴	이공이라
11	子貢의	문난정사	宣尼말씀	足食이라
12	于嗟읍다	더保介야	不可緩也	民事로다
13	農家의	克敏흔릴	旣備迺事	흐자서라
14	火耕水耨	모든百姓	疏通溝塍	힘써하니
15	南畝의	迎暘호여	荒穢를	理去호고
16	旣庭旣碩	흐온후의	不稂不莠	호여서라
17	厭厭흔	더碩苗를	기엇지	헐후홀가
18	提鋤호잔	모든의논	辛苦타	말치마쇼
19	이너公田	오일미고	이네私田	너릴호식
20	언듯野日	當午하니	汗翻漿	필로말쇼
21	이귀더귀	빈디업시	第一大關	討草로다
22	今日곳	奪時호면	周箱魏籩	어디볼고
23	竭力勸耕	슬어말쇼	一家之風	淳厚터라
24	麥飯藜羹	이너午飧	鼓腹歌로	擊壤한다
25	술이야	호건마난	無巡이	亂酌홀가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먼저 봄을 맞아 때를 놓치지 말고 땅을 일구어 기장의 씨앗을 파종하라고 하였다(05~06). 이어 나라에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이 몸소 관리들을 거느리고 적전을 갈던 친경을 언급

하였다. 아울러 정전법과 같은 올바른 토지제도와 영농법을 베풀어 세상을 다스리니, 정치의 요체가 곧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데 있음을 환기하였다(07~12). 그리고 전가에서 서둘러 할 일로 논밭의 도랑과 두둑 치기, 거친 땅 고르기, 싹이 자란 밭의 가라지 뽑기, 호미로 공전과 사전 매기를 들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큰 일이 ‘토초(討草)’라고 하였다(13~21). 또 때를 놓치지 말고 경작에 힘쓸 것을 거듭 당부하며, 보리밥과 명아주국에 술을 곁들여 들에서 먹는 점심의 정취를 그렸다(22~25). 전반적으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기까지 전가에서 행할 일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 제3단이다.

26	田家의	困苦	흔릴	稼穡	艱難	물올	손야
27	樽儉	節用	씨친	聖訓	우리	邦家	先政
28	못노	나	東方	貢稅	三代	와	엇더
29	五十	而貢	七十	助은	夏	殷의	遺法
30	百畝	之徹	周人	政은	什一	之稅	괴아
31	일어	타	씨친	定制	列	聖朝의	쏟을
32	薄斂	輕賦	호오	실제	富而	其隣	도
33	엇디	타	小人	用事	肥瘠	高下	못
34	稅外	加稅	무슨	릴고	用又	讐斂	어니
35	小東	大西	어디	미요	抒抽	其空	今日
36	二月	新絲	몬져	팔고	五月	新谷	다시
37	重嚴	하다	더	貢賦	를	엇디	아이
38	어와		農夫	덜아	失	農	곳
39	이	너	重稅	어이	홀고	勤勞	타
40	이	식	니	저	식	이	예
41	엇디	호야	容	舒	홀	가	一切
42	못	제	호면	어이	홀	리	宋人
43	傷	苗	도	홀	여	이	와
44	今年	의	못	다	호면	明年	鋤
45	苗而	不秀	秀	不	實	은	이
46	若	苗	之	有	莠	莠	은

- 47 如粟之 有糠粃은 獾狢과 엇더 혼고
 48 風雨뒤의 더蝗虫은 群賊갓치 나느고야
 49 予子 혼 더嘉禾른 君子갓치 困苦 혼고
 50 이너野人 아일라면 우리君子 길울손야

역시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2단의 안정된 분위기와는 달리 단락을 바꾸면서 전가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전가의 어려움을 초래한 주범으로 나라의 어지러운 세정을 지목하였다. 원래 동방의 조세제도는 하·은·주 삼대의 좋은 점을 본받아 가볍게 부과하였는데, 어찌다 소인들이 득세하여 운용하며 경중을 따지지도 못하고 이중과세에 가렴주구를 일삼게 되었다고 하였다(26~34). 그래서 이 고을 저 고을 할 것 없이 전가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2월에 새로 짠 베와 5월에 수확한 햇곡식을 그대로 내다 팔아야만 하였으니, 중엄한 조세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35~37). 때문에 그 무거운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부들에게 작물 사이사이에 섞여있는 ‘악초(惡草)’를 용서치 말고 뿌리째 뽑아내자고 하였으니, 악초를 곧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적으로 보고 증오하였다(38~45). 그리고는 시야를 나라로 확대하여 새싹 속의 가라지(莠莠)는 간신과 같고, 곡식 속의 쪽정(糠粃)은 오랑캐와 같고, 풍우 뒤의 누리(蝗虫)는 도적떼와 같고, 외로운 벼(嘉禾)는 군자와 같다고 하였으며, 벼를 가꾸는 농부 즉 야인이 아니면 군자도 길러낼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46~50). 소인들에 의해 잘못 운용되고 있는 문란한 세정을 꼬집고, 농사를 정치에 비유하여 악초 같은 소인을 뿌리 뽑고 벼 같은 군자를 기를 것을 소망하였다. 당시의 많은 현실 문제 중에서도 특히 문란한 세정과 소인의 발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민농가>의 결사에 해당하는 제4단이다.

- 51 흐자서라 이너農本 더욱빅비 흐자서라
 52 輸貢도 흐연이와 輔賢인달 아일손가
 53 黜少人 陟君子른 王家의 大政이요

- 54 除惡草 培嘉禾은 田家の 急務로다
 55 어와 더農夫아 고쳐힘써 ㅎ자서라

작품을 마무리하며 농본에 충실하자는 권농의식을 다시 환기시켰다. 농사가 곧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현인을 보좌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인을 내치고 군자를 올리는 것이 ‘왕가의 대정’ 즉 국가의 바른 인사이듯, 악초를 제거하고 벼를 잘 기르는 게 ‘전가의 급무’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농부’를 호명하며, 함께 농무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겉으로는 전가에서 서두를 일을 보다 강조한 듯하지만, 기실 나라의 바른 인재 등용을 바라는 마무리이다.

지금까지 <민농가>의 내용을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각 단락의 내용을 주요한 진술 대상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제1단 : 나라의 근본과 백성(전가)의 근본
 제2단 : 나라의 권농 정책과 전가의 경작 활동
 제3단 : 나라의 문란한 세정과 전가의 악초 제거
 제4단 : 왕가(나라)의 대정과 전가의 급무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민농가>의 전체 내용은 큰 틀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진술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일에 관한 진술과 전가의 일에 관한 진술이 그것이다. 작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두 진술 내용은 ‘왕가(나라)의 대정’과 ‘전가의 급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두 진술을 통해 <민농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주제의식을 해명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민농가>가 갖는 문학적 성격도 아울러 밝혀질 것이다.

<민농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진술 내용 중 전가의 일을 표면에 내세운 농부가류 가사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기존 농부가류 가사와 대비해

보면, 무엇보다도 농사일을 기술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감지된다. <민농가> 역시 ‘노농’과 ‘농부’를 호명하며 이야기를 전개하였지만, 실질적인 농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농부가류 작품들이 달이나 절기, 또는 경작 과정에 따라 전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소상히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하여 <민농가>가 작자 자신의 농경 체험이나 농촌 생활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민농가>에서 농사 정보를 제공하며 권농하는 내용이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제2단이다. 그런데 <민농가>의 창작 의도가 순수한 농사 정보의 전달에 있었다면, 제2단의 내용은 봄철의 파종에서부터 가을철의 추수에 이르기까지 일 년 농사의 전 과정을 다루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단은 정작 봄과 여름의 농사일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농사의 가장 요체라 할 가을걷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서 <민농가>의 창작이 갑신년 6월에서 7월, 즉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문면에 기술된 시간이 바로 그 창작 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민농가>가 봄과 여름의 농사일만을 기술한 것은, 작자가 작품을 창작할 시점인 늦여름 또는 초가을까지의 시간만을 의식하며 자연스레 창작에 임했던 결과였을 것이다. 이런 시간 표현은 곧 작자가 애초부터 한해를 아우르는 농사 정보를 정연하게 갖추어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러기에 제2단에 기술된 농사일 역시 전문적이기보다는 그저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봄에 땅을 잘 일구어 때 맞춰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는 동안 김매기를 철저히 하여,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굳이 작자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누구나 숙지하고 있을 만한 일들로, 전혀 특별하지 않다.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농사일의 제시는 실제적인 유용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농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농부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거나, 또 다른 제3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토초’, 즉 가라지와 같은 악초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였다(21)는 점이다. 이는 곧 <민농가>가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단순한 권농이나 농사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면에 또 하나의 숨은 의도를 가졌음을 말해 준다. 그것이 바로 제3단에 보이는 당시의 사회 및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농사일이 직접적인 기술 대상이었던 제2단과 달리, 제3단에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기술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소인들에 의해 잘못 운용되는 나라의 어지러운 세정,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전가의 어려운 생활상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다. 때문에 뒤 이어 나오는 악초 제거 즉 토초를 재촉하는 내용(40~45)은 사실 전가에서 실제로 행할 일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썩먹는 소인을 척결하자는 비유적 표현으로 읽힌다. 나아가 ‘가라지와 간신’, ‘쪽정리와 오랑캐’, ‘누리와 도적떼’, ‘가화와 군자’ 사이에도 매우 적절한 비유적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비판적 기술을 끌어내기 위해 제2단에서 전가의 여러 일 중 특히 토초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사에서 보듯, 전가의 급무는 결국 왕가의 대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전가의 급무가 악초 제거이듯 왕가의 대정은 곧 소인 축출에 있다는 것이, 작자가 <민농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로 떠오른다. <민농가>의 이런 주제의식은 앞의 창작 배경에서 검토한, 작자가 직접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힌 발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렇듯 <민농가>는 이중적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이다. 일차적으로는 전가 농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주제를 가졌다. 그런 한편 나라의 문란한 세정과 소인의 발호를 비판하며, 소인의 척결을 주장한 또 하나의 주제를 내재하였다. 때문에 <민농가>는 작품의 성격상 농부가류의 권농가사이자, 현실비판가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권농가사보다는 현실비판가사 쪽에 보다 무거운 방점이 놓인다.

조선 후기 농부와 농업에 대해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이 등장한 농부가류 가사는 17세기 후반에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대부분의 작품이 산출되었다. 지금까지 작자가 확인된 작품을 제작 시기 순으로 들면, 김기홍(1635~1701)의 <농부사>를 비롯하여, 작암(作菴)의 <부농가>와 김익(1746~1809)의 <권농가>, 정학유(1786~1855)의 <농가월령가>, 최내현의 <농부가>, 이기원(1809~1890)의 <농가월령>, 윤우병(1853~1930)의 <농부가>, 정해정(1850~1923)의 <민농가>, 이태로(1848~1928)의 <농부가>, 김주희(1860~1944)의 <권농가>, 김영찬(1866~1933)의 <권농가>가 있다. 이 중 김기홍의 <농부사>가 17세기의 것이고, 작암의 <부농가>와 김익의 <권농가>가 18세기에 나왔으며, 나머지는 모두 19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밖에 작자와 연대 미상의 작품으로 <권농가>, <기음노래>, <명당가>, <치산가>, 그리고 수 편의 <농부가> 등이 있다.

이런 농부가류 가사의 일반적인 내용은 작품들의 제목에서 보듯, 중농 사상을 바탕으로 농사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며 권농하거나, 일상적인 농경 체험 및 농촌 생활을 말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증대 및 인륜 도덕의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농가월령가>, <농가월령>, <기음노래> 등에서 간혹 어려운 농가의 실상 및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보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보다 큰 교화적 담론에 포섭되어 있었다.¹¹⁾

남군의	빅성되아	은덕으로	살아가니
검의갓흔	우리빅성	무어스로	갑하볼가
일년의	환즈신력	그무엇	만타홀고
한전의	필납흙이	분의에	맛당ㅎ다
ㅎ물며	전답구실	토지로	등분ㅎ니
쇼출을	싱각ㅎ면	십일세도	못되느니
그남아	못먹으면	직쥬어	탕감ㅎ니
이런일	즈세알면	왕세를	거랍홀가 ¹²⁾

11) 길진숙, 「조선후기 농부가류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75~81면, 92~98면 참고.

<농가월령가> ‘시월령’의 일부이다. 나라의 세정에 대해 <민농가>와는 매우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환자(還子)와 신역(身役)과 조세(租稅)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나라에서 해마다 환곡에 붙이는 이자, 백성들을 부리는 신역,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가 결코 많지 않다고 하였다. 또 논밭의 조세는 토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데 소출에 비하면 십분의 일도 되지 않고, 그나마 농사를 잘못 지으면 재해로 간주하여 탕감까지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런 일을 자세히 안다면 납세를 거부하지 말고, 기한이 되기 전에 필납하는 것이 백성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다. 어려운 농민들의 처지에 공감한 듯하면서도, 그들이 현실을 감내하며 순순히 따르기를 바라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것이 곧 현실 문제에 대한 농부가류 가사의 지배적인 담론이다.

하지만 <민농가>의 내용은 이미 이런 담론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 있다. <민농가>에서 세금은 이미 십일세의 취지를 상실한 이중과세와 가렴주구에 다름 아니며(28~34),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백성된 도리 때문이 아니라 거납(拒納)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37~39). 그래서 부지런히 악초를 제거하여 전가의 소출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악초와 같이 나라를 쪼먹는 소인들을 몰아내자는 것이 작품의 요지이다.

이렇듯 정해정의 <민농가>는 현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농부가류의 어느 작품보다도 강화시켰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는 곧 <민농가>의 주제의식이 농촌 사회의 안정 회구보다는 부당한 현실의 타파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농가> 이후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창작된 이태로의 <농부가>에서 ‘국권 회복의 의지와 함께 주권의식을 고취’시키는¹³⁾ 강한 현실 지향을 보게 된다.

정리하자면 <민농가>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농부가 양식에 내용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겉으로는 농부를 호

12) 박성의 교주, 『농가월령가·한양가』, 민중서관, 1974, 62면.

13) 구사회, 「우고 이태로의 <농부가>와 애국적 형상화」,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309면.

명하며 전가의 농사일을 말하는 권농가사를 표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농사일을 통해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와 정치적 현실을 선명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이 바로 <민농가>의 독특한 성격이자 의의이다.

4. 맺음말

<민농가>는 조선 말 정해정이 지은 가사 작품이다. 1980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후 <민농가>는 <농가월령가>와 같은 일반적인 권농가사로 그런대로 잘 알려졌지만, 정작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민농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 작품이 보통의 권농가사와는 달리 현실비판가사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밝힌 것이 이 글이다.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농가>의 작품 외적 문제로 그 창작 배경을 탐색하였다. 작자 정해정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및 작품의 창작 동기가 그것이다. 정해정은 조선 말 호남의 무등산 자락에 살았던 향촌의 선비로, 19세기 후반 특히 개항과 개화로 대변되는 요동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와 어려운 민생에 반발하여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어 <민농가>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주제의식과 함께 농부가 류 가사로서 갖는 문학적 성격을 해명하였다. 내용 분석은 작품 전체를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농가>의 내용이 다시 ‘전가의 급무’와 ‘왕가(나라)의 대정’이란 말로 요약되는,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진술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농가>가 두 개의 주제의식을 가졌음을 밝혔다. 하나는 전가 농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장한 것이요, 또 하나는 나라의 문란한 세정과 소인의 발호를 비판하며 소인 척결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농가>는 작품의 성격상 권농가사이자 현실비판가사로 분류되며, 후자에 보다 큰 무

계가 실려 있다.

이렇듯 <민농가>에는 농촌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교화적 담론이 주류를 이루던 일반 농부가류 가사에 비해 현실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강화되어 있다. 이는 곧 <민농가>에 와서 농부가류의 주제의식이 농촌 사회의 안정 회구에서 부당한 현실의 타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음을 의미한다. 농부가류의 이런 변모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남은 과제이다.

참고문헌

- 구사회, 「우고 이태로의 <농부가>와 애국적 형상화」,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309면.
- 길진숙, 「조선후기 농부가류 가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75~81면, 92~98면.
- 김기탁, 「농부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영남어문학』 제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논총』 제12집, 태민국학연구원, 2013, 40~49면.
- 김신중·박영주 외,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2009, 234~241면.
- 류탁일, 「농부가 주해」, 『한국문학논총』 제2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 박성의 교주, 『농가월령가·한양가』, 민중서관, 1974, 62면.
-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142~147면.
- 신성환, 「조선후기 농촌공동체의 운영과 농부가류 가사」, 『우리어문연구』 44, 우리어문학회, 2012.
- 육민수, 「농부가류 작품의 담론 양상」, 『인문과학연구』 14,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이상보, 「김기홍의 관곡가사」, 『증보 17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2001.
- 이상보,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3, 528면, 530~531면.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제38권, 아세아문화사, 1998, 422~424면.
-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제7권, 아세아문화사, 2005, 430~433면.
- 임치균, 「<농가월령가>의 일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황인덕, 「농부가 고찰」, 『어문연구』 13,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4.

<Abstract>

Study on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Jeong Hae-Jeong's <Minnongga>

Kim, Shin-chung

This research is a study on Jeong Hae-Jeong's lyrics <Minnongga>, written in 1884. <Minnongga> was first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in 1980. However, a regular research on the work has not been tried yet. Here, this paper explained the creation background and literary characteristic of <Minnongga> through detailed examination of it. Chapter 1 mentioned this research purpose and goal.

Chapter 2 investigated the creation background of <Minnongga>. That is, Writer Jeong Hae-Jeong's life, the period background where he lived and his creation motive. Jeong Hae-Jeong is a person who lived at the foot of Mudeungsan mountain in Honam, during the late Joseon, who wrote this work by reflecting the special social situation of that time, in the period environment of the late 19th century, which represents port open and enlightenment.

Also, in chapter 3, the researcher explained subject consciousness and literary characteristic through detailed content analysis of <Minnongga>. Content analysis was proceeded by dividing the whole work into four paragraphs, and the researcher determined that two subject consciousnesses were connoted in <Minnongga>. As the result, the researcher insisted that <Minnongga> was not mere a farm encouragement lyrics, but a reality criticism lyrics which resisted

unreasonable social conditions and the people's difficult livelihood of that time. Also, as a type of farmers' song lyrics, the researcher considered that <Minnongga> has the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Lastly, the researcher summarized the content and result of the research. Also, the researcher suggested investigation of transformation of late Joseon farmers' song lyrics, which <Minnongga> implies a clue, as a remaining subject.

Key words : Jeong Hae-Jeong, <Minnongga>, farmers' song lyrics, farm encouragement lyrics, reality criticism lyrics

투고일 : 2015년 1월 2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
--